

무역업무의 새로운 통신 수단



(주)비엘허브

www.blhub.com

“정 보통신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역(S/R)데이터 유통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래머를 찾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 현재 런칭 준비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비즈니스 지원센터 306호, 직원들이 일하는 옆에 놓인 동그란 테이블에서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하는 김주석대표. 물류 회사 재직 시 느꼈던 불편함이 회사를 창업한 계기가 되었다는 김주석 대표는 공항청사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물류회사에서 담당하는 수출 업무는 화주가 선적요청서(S/R)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포워더에게 보내면 이를 받은 포워더는 선하증권(B/L)형식에 맞춰 각 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체크 B/L을 출력하여 다시 화주에게 보내고, 여러 차례 S/R의 정보 누락 및 오타 확인, 수정과정을 거쳐 화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것을 팩스나 전화를 이용할 경우 7~9회 이상의 통신비용이 발생되고 출력을 위해 5~14매의 종이 필요하다. 이 지난한 과정을 ECR(전자문서관리)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시스템 도입 비용 없이 무역 구성원들간의 전자문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비엘허브의 기술은 비용절감과 함께 업무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용은 시스템 로그 온 후 로딩, 메모리 상 데이터를 캡처해서 시스템에 삽입하면 된다.

“프로그램 개발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 가동 중에 사소한 문제가 발견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게 예상



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처음의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같은 것을 여섯 번 이상 만들었거든요.”

런칭 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거래업체에서 한번 오류가 나면 신용을 잃게 되므로 문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해야한다는 김대표의 말. 실제로 0.01%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체 물류량으로 보면 500건 정도가 크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여기가 아니었으면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못 받았죠. 밤낮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어요.” 김대표와 보육센터 최상조 사무과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엠텍비전 같은

1,000억 클럽 벤처들을 키워온 곳으로 유명한 서강대 센터. 엠텍소프트, 셀렉시스도 이곳을 졸업한 기업이다. “예전에 엠텍비전 과장님하고도 저녁이면 술 많이 했죠, 지금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웃는 최 사무과장. 보육센터는 비엘허브의 추가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조건을 문자 첫째도 둘째도 ‘아이템’ 이란다.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의 현실성, 구체성을 따져봐야죠. 유사한 길로는 생명도 짧으니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 거죠. 비엘허브의 사업성을 타진했을 때 ‘이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6개월 정도 지켜보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보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직감이죠. 지켜보면 지원할 게 보입니다.” 최상조과장은 비즈니스 센터 7년차 이다. 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으니 가히 스타메이커라 할 만하다.

“비엘허브제품이 어느 정도 시세품에 가깝게 나왔을 때 매출이 100억

정도 되는 수출 관련 기업에 테스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엘허브의 강점은 수출입 에러를 줄이고 대기업에서 개발하려다 실패한 것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부터 런칭을 앞 둔 지금까지 비엘허브를 지켜본 최 과장이 내놓은 마스터 플랜이다.

이곳은 입주한 업체 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결한다. 또한 내부 기업 간 정보와 산학협력으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교수 협력도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같은 센터의 지원에 이 학교 센터를 졸업한 대표자 모임은 1년 1회 재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준다. 올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이기도 했단다. 기업체

숫자가 50여 개 가량 되는데 회사 간 연결을 우선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2년 내 시장점유가 목표입니다. 가격이요?”

통신료 내듯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요, 인건비 등 이전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007년을 성공적 런칭의 해로 정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비엘허브의 포부다.

서강대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마포구청에서 건설하고 올해 6월 오픈하는 상암 DMC를 위탁 운영한다. 실면적 900평 가량의 공간에도 이곳을 졸업한 기업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자리마다 기운이 있는데 306호는 대대로 잘되는 사무실이지요. 참 그리고 저희를 창업보육센터라는 명칭 말고 비즈니스 혁신센터라고해주세요.” 신생벤처 지원에 있어 전문성과 다른

곳과 차별된 서강대만의 특성이 담긴 말. 소나무가 고개를 끄덕이는 창 너머로 학생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들린다. 따스한 날이다.

bi HUB서비스 가입하기

1

www.blhub.com에 회원 가입

2

화주, 포워드, 선사용 프로그램 설치

3

회원인증 후 사용

□ 비엘허브(주) bi HUB

대표 김주석
설립일 2005년 1월
직원수 3명
주요품목 인터넷을 통한 무역(S/R) 데이터 호환 프로그램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1번지 서강대학교 B.I.센터 306호
홈페이지 www.blhub.com
전화/팩스 02-718-0780/02-718-0790

□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김낙수
매니저 최상조 사무과장
개소일 99년 11월 30일
입주기업 13개
전화/팩스 02-718-0780/02-718-079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